

총체적 장·단기 방산정책 수립 시급

— 『세계화에 부응한 방위산업 육성 방향』 '95 방산 정책 개발 심포지엄



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柳繼佑)와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白永勳)는 세계화 정책 속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제반여건과 선진각국의 방산정책변화를 살펴 우리 현실에 맞는 방산정책과 경영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11월 17일 캐피탈 호텔에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에 부응한 방위산업 육성방향>을 주제로 '95 방산 정책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재운 중앙大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주제 발표에서 『세계화에 부응한 방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KID 권기정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산업 고도화를 선도하고, 외국의 기술이나 수입에 의존할 수 없는 전략적 사업인데 현재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국방부문과 민수부문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적정 가동률 확보를 위한 조달 규모와 연구개발 투자비를 선진국 수준(7~12%)으로 확대하고, 수출품목과 절충 교역을 확대하는 수출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육성기금 확대 조성 등 총체적 국방가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단기 방위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무기 획득 및 방위산업 정책』을 발표한 한국국방연구원 황동준 박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처한 주변 안보환경에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무기획득 및 방산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이스라엘은 군(IDF) 조직의 간소화, 효율화를 추구하여 첨단무기 개발능력의 확보를 방산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국방비의 9%)와 방산업체간 경쟁 및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정책을 추진하여 최신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방산을 수출 전략 사업으로 육성, 무기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국방경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 정책』을 발표한 울산大 김환석 교수는 미국의 국방기술정책 기조는 현재 기술 지식이 지니는 민군 양용적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해 한정된 국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民·軍 共用(dual-use)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평화통일과 기술 선진국을 추구해야 할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民·軍 共用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군수산업의 구조 전환』을 발표한 경남大 이은진 교수는 냉전 체제의 붕괴와 국방 예산의 감축에 따라 미국의 방산 기업은 인수와 합병 등 이에 따른 대책에 몰두하면서 군수생산 감소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핵심부분 개발과 연구, 기본무기 개발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내부적 원가 절감 노력과 사업 다각화 방안으로 군용기술의 민용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부 순서로 최성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정과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삼성항공, F-16 국내 조립 생산, 공군에 인도

— 속력 마하 2, 미사일 무장으로 MiG-29기 압도



삼성항공(대표李大遠)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으로 추진되고 있는 F-16 전투기의 국내 조립생산을 축하하는 출고 기념식과 축하비행을 11월 7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가졌다.

F-16은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이 전방 동체와 최종조립부분을 맡고 대한항공이 주날개와 후방 동체, 대우중공업이 중앙동체와 전방동체를 각각 나눠 생산하는 등 9개 업체가 생산에 참여했다.

총 50억불이 투입되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이미 완료된 1단계 완제기도입에 이어, 2단계 국내조립생산, 3단계 국내면허생산으로 99년까지 총 1백2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KFP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수준은 선진국 대비 70%로 높아질 것으로 관련업계와 국방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생산된 F-16 블록 50/52형은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87년형 블록30보다 기골이 보강되었을 뿐만아니라 추력이 증가된 신형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최대 이륙중량 및 기동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인공위성항법장치(GPS)를 비롯해 야간저고도침투 및 공격장비(LANTIRN), 레이더 성능개량 및 대공 제압무기(HARM)장착 등 전반적으로 항공전자 계통을 대폭 개선, 보강한 최신행 전투기이다.

따라서 러시아 주력기인 MiG-29기와 공중전을 벌일 경우 초당 19.2도의 높은 회전능력과 마하2의 초고속을 이용, MiG기의 꼬리를 먼저 물고 격추시킬 수 있다.

국내 시뮬레이터 기술 한자리에 모여 ...

공군이 주최하고 대우중공업이 주관한 「국제 모의훈련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11월 3,4 양일간 계룡대에서 열렸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체 그리고 공군간의 기술교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날 행사는 박춘택 공군참모차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장성 및 담당자, 학계, 연구소, 산업체, 유관기관 관련자 5백 여명이 참석하였다.

시뮬레이터 개발사례 및 기술관련 내용과 연구사항 등이 논의된 세미나와 국내외의 시뮬레이터의 전시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공군의 모의훈련체계를 향상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제4회 지상무기체계 발전 세미나 열려

—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지상무기체계 소요 창출 성과

국 방과학연구소(소장 裴文漢)는 11월 21일 우리나라 지상 전력의 수준과 성능을 한 단계 향상시키게 될 『지상 무기 체계 발전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 세미나는, 이번에 4회째 실시한 것으로 지난 3회까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 그 동안 군에서는 무기 체계의 발전 방향과 현용 장비의 도태 계획을 전력의 총괄적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위협에 대처한 기술 현황 분석과 핵심 기술 발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무기 체계의 소요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세미나는 분야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장비별 발전 추세 분석과 연구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국방부·합참·육본·육군 교육사령부와 각 병과 학교,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방산 업체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회식에 이어 특별 강연, 주제 논문 발표와 토의 및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연덕·정운찬·박영규 박사 등 8명과 육군교육사령부의 유철희 중령, 현대전자의 이남호 부장 등 많은 학자와 관계 인사가 참석하여 지휘/통제·통신·기동·화력 분야의 제1 주제와 정보/전자전·육군항공·방공·화생분야의 제2 주제로 나누어 시종 지대한 관심과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술 C⁴I」, 「21세기의 병사 체계」 등 17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세미나를 통하여 전장 기능별로 분석된 취약분야를 보완하고 운용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최적의 무기 체계를 도출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상 무기 체계와 국방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산 항공기 설계 개발 기술 증진 모색

— 제3회 항공기 개발 기술 심포지엄

3회를 맞이한 이 심포지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용 항공기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산 항공기의 설계와 개발 기술의 발전을 증진하며 産·學·研·軍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하여 통상산업부·건설교통부·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정부출연기관과 육·해·공군 및 방산업체에서 8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난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기 체계종합과 비행시험·항공전자·성능·비행조종·구조·항공추진·항공기기에 관한 내용을 8개 분과로 나누어 총 43개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시종일관 열띤 토론과 참석자 전원의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기술과 산업발전의 미래를 밝게하였고 産·學·研·軍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국 방과학연구소(소장 裴文漢) 제3연구개발 본부는 지난 10월 27일 항공기 개발 기술 심포지엄을 國科研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軍과 업체간 상호 신뢰 구축 시급

- 방산 간담회에서 업체 애로사항 건의

한 국방위산업진흥회(회장 柳繼佑)는 방산과 관련된 현안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국방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업체의 애로점과 의문점을 질의 및 토론하는 간담회를 11월 23일 국방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측은 국내 독자기술개발 가능한 사업도 해외 기술도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국방장기계획을 업체가 파악하기 곤란해 적절한 투자와 국산화 연구 개발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업체 중심의 창정비 정책을 추진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해 尹鍾昊 제2차관보는 국방부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방산업체의 애로점을 함께 나누하겠다고 전제하고 가격이 비싸고, 소요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



산무기 우선 구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업체도 신속한 창정비로 장비 가동률 향상에 노력해 줄 것과, 軍과 업체간 상호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 한국의 군사체계』 기획 세미나 개최

- 민간연구기관에서 처음 통일 이후 軍 문제를 다뤄



최된 이번 세미나는 羅鍾一 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金泰宇 수석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黃炳茂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河大憲 국방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주제별 논문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통일 이후의 군문제’를 민간연구기관에서 최초로 본격조명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통일한국시대 세계정세와 동북아 군사환경」 裴珍洙 한국군사문제연구위원, 『통일이후 한국의 군사전략』 李珉龍 육군사관학교교수, 『통일한국의 군사력 구조』 丁炳浩 국방대학원교수, 『통일한국의 무기체계』 金鐵煥 국방대학원교수, 『통일한국의 방위산업발전』 李在潤 중앙대교수, 『통일한국의 동원체계』 李必重 국방부 21세기 국방연구위원회 연구위원, 『통일한국의 대외군사협력』 李基琮 경희대교수, 『통일한국의 민군관계』 宋炳祿 경희대교수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재 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원(이사장 權憲成)은 지난 11월 7일 스포타임 그랜드 볼룸에서 『통일한국의 군사체계』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년 5월 외무부 소관 비영리 학술연구단체로 출범하면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